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지나 봄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역 소식

예전 기도 편지에서 나눴듯이 이스라엘 내 가자 지구는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장의 여동생은 치료차 방문했던 요르단에서 아직 자기의 집인 가자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의 소통은 되지 않고 있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4월쯤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집과 일터도 잃어버리고 가족과도 이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여기 팔레스타인 난민촌 지역에 쓰지 않고 오래 방치된 센터 건물을 렌트비를 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여러 번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운 센터를 비워두고 문을 잠근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에 센터장과 함께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seed money로 시작하는 일이라 오랫동안 쓰지 않고 닫혀있는 이 센터에서 렌트비를 내고 시작하길 바라고 있지만 계속 담당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작은 장소를 찾아봐야 합니다.

가족 소식

아이들은 감사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기도 모임과 토요일 한인 교회에서 하는 비전 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둘째인 남자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해 주말 아침에 축구도 하고 경기도 준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예비 고3이 되어 진로를 두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저희 팔레스타인 난민 센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저희 동역자인 센터장 니아매 자매 가족을 위해 가자 지구에 있는 친인척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세 아이들의 학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200만원을 이번 달에 완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